

「케임브리지」學派 經濟學의 生成過程

— 「마셜」經濟學의 問題意識을 中心으로 —

姜 命 圭*

.....〈目	次〉.....
I. Cambridge 學派의 略譜	論과의 差異點
II. Marshall 에 있어서의 倫理와 科學	V. 價値論上의 折衷問題
III. Marshall 理論의 二重性	VI. 古典派經濟學과 新古典派經濟學
IV. Marshall 體系의 構造——一般均衡	VII. Marshall 經濟學의 歷史的 背景

I. Cambridge 學派의 略譜

經濟學史上 Cambridge 學派란 英國 Cambridge 大學에서 40 餘年間 經濟學을 指導했던 Alfred Marshall (1842~1924)의 理論을 基礎로 展開된 英國 正統派經濟學의 主流를 말한다. 여기서 우선 이의 系譜의 位置를 確認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이른바 近代經濟學의 生成을 1870 年代初에 開始된 이른바 限界革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그 歷史가 이미 100 년이란 長久한 歲月을 經驗한 것이 된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新古典學派」는 이처럼 1870 年代以後 形成된 近代經濟學諸派의 總稱으로 使用되는 廣義의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狹義로 해석할 때는 특히 Marshall 經濟學을 中心으로 展開된 英國의 Cambridge 學派를 指稱하고 있다. 이의 學說史의 位置를 確認하기 위해서 다시 廣意의 新古典學派를 分類해 보면 1) 英國의 Stanley Jevons 의 見解와 그 傾向을 繼承한 Wicksteed, Edgeworth 등을 包含하는 Jevons 學派, 2) 오스트리의 Wien 大學을 中心으로 Menger 에 의해 形成되어 Böhm-Bawerk 및 von Wieser 가 代表하고 있는 Austy 學派, 3) 스위스의 Lausanne 大學에서 Walras 에 의해 形成되어 Pareto 에 繼承되고 西歐大陸諸國의 近代經濟學에 多大한 影響을 미친 Lausanne 學派, 그리고 이밖에도 4) Scandinavia 諸國에서 Wicksell 과 Cassel 에 의해서 發端된 Stockholm 學派와 5) J.B. Clark, Fetter, Carver, Davenport 를 包含하는 限界主義와 I. Fisher 에 의해 代表되는 數理經濟學으로 構成되어 있던 美國의 近代經濟學派와 끝으로 6) Marshall 에서 出發된 英國의 Cambridge 學派의 흐름으로 大別할 수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副教授

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은 廣義의 新古典學派에서 Marshall 經濟學의 흐름을 잇는 Cambridge 學派를 除外한 餘他 諸學派의 共通의 特徵은 舊古典學派 특히 Ricardo 經濟學에 反對하여 勞動價值論을 脫皮하고 限界效用學說을 採擇하여 이론마 「限界革命」을 發端・展開해 갔으나 그 經濟理念에 있어서는 自由主義의 立場을 취하여 自由롭고 私的인 經濟主體에 의한 自由競爭體系 즉 自由經濟가 機能하는 一般的, 抽象的인 法則 내지 原理를 說明하려고 한다. 이 點에 關한 限 新古典學派는 舊古典學派의 自由主義와 相通하는 바가 있으나 舊古典學派에 있었던 階級觀이 없어지고 方法論的인 個人主義에 透徹하다는 點에서 舊古典學派와 다르다. 한편 이들은 價值論의 變革에 의해서 經濟學을 主觀主義化하는 同時에 分析方法은 限界分析의 方法을 驅使하고 主로 短期的인 問題에 視野를 集中시켜 經濟理論의 精密化에 寄與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經濟學이 社會關係의 認識手段을 喪失하고 純全한 技術的學問으로 轉化할 可能性을 가져 왔다는 批判을 받게 되었다.

英國의 正統派經濟學을 形成하게 된 Cambridge 學派가 以上과 같은 廣義의 新古典學派의 흐름에서 어떻게 區別되는가를 간단히 살펴 보자. Alfred Marshall 은 1870 年代以後 出現한 限界分析의 諸手段을 包攝하면서도 英國 古典學派의 Ricardo 나 J.S. Mill 의 客觀的 價值論 특히 Mill 의 生産費說을 받아들여 兩體系를 綜合적으로 調和시킴으로써 新古典學派의 創始者가 되었다. Marshall 以後의 Cambridge 派經濟學은 그 實踐의 經驗論의 性格에서 유럽大陸의 近代經濟學諸派와 다르며 修正資本主義의 見地를 擇하게 된다. 그것은 넓은 意味에서의 自由主義思想의 潮流에 屬하면서도 舊古典學派의 自由放任主義가 아니며 J.S. Mill 과 같은 所得分配關係에 있어서의 修正의 餘地를 政府活動에 期待하는 立場인 것이다. 유럽大陸의 近代經濟學이 限界分析이라는 새로운 分析方法을 採用하면서도 Smith 以來의 自由放任主義思想을 觀念적으로 固守하고 있는 것과는 相當한 差異가 있는 것이다. 이는 經濟學의 存在形態에 關한 基本態度의 差에서 由來되는 것이지만 Cambridge 學派의 경우 經濟學은 人間生活의 向上을 위한 物質的 諸條件을 分析하는 科學으로서 理論과 實踐(내지 政策)사이에 密接한 相互浸透關係를 認定하는데 反하여 大陸의 近代經濟學은 理論과 政策을 峻別하여 實證經濟學(positive economics)과 規範經濟學(normative economics)을 전혀 別個의 研究分野로서 醇化시키고자 한다. 이처럼 經濟學의 研究方法上의 基本的인 態度差가 있기 때문에 分析理論의 共通性에만 着目해서 1870 年代以後 Keynes 革命 以前段階까지의 近代經濟學諸派를 한결 같이 新古典學派에 總括하는 廣義의 解釋에는 無理가 따른다고 본다. 이 論文에서는 問題를 狹義의 新古典學派인 英國 Cambridge 學派 특히 Marshall

에 限定시켜 近代經濟學史의 正統의 潮流를 展望하는 視角을 設定하고자 하는 試圖에 지나지 않는다.⁽¹⁾

II. Marshall에 있어서의 倫理와 科學

Alfred Marshall은 1885년에 Fawcett의 後任으로 Cambridge大學教授로 任命되면서 그 格調 높은 開講辭를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어제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生活이 風塵과 汚辱과 悲慘한 상태에 끌려가고 있는가. 어제서 것처럼 많은 이들의 수척한 얼굴과 卑屈한 靈魂이 있는가. 主된 原因은 富가 充分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存在해 있는 富의 分配와 使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강한 人間의 偉大한 어머니인 Cambridge가 世界에 배출해 내는 者는 冷徹한 頭腦와 따뜻한 心情으로써 自己周邊의 社會的 苦惱와 鬭爭하기 위하여 自己의 最善의 能力의 적어도 一部分이나마 기꺼히 바치려 하고, 또 教養있는 高尚한 生活을 위한 物質的 手段을 모든 사람에게 賦與하는 일은 어느 程度까지 可能한지 를 밝히는데 自己의 全能力을 다하기 까지는 安心도 滿足도 없겠다는 決心을 하는 者이지만 이와 같은 사람을 점점 더 많이 增加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 貧弱한 才能과 限定된 힘을 바쳐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자 하는 것이 내 胸中 깊이 간직된 念願이며 또한 最高의 努力이다.」⁽²⁾

英國經濟史上 것처럼 豐饒의 Victoria 時代라 불리던 時代에 어제서 East End가 存在하는 것이며 貧困은 어떻게 하여 除去할 수 있는 것인가. 富裕하고 選擇된 子弟가 모여 있는 Cambridge에서 Marshall이 맨 먼저 던진 問題는 그런 것이었다. 一生을 통해서 그는 이러한 問題意識을 堅持했던 것이며 이런 意味에서 그는 世界觀과 科學을 分離시켜 어떠한 理想論을, 世界觀 또는 어떠한 政策으로부터도 切斷된 學問을 志向하고자 하는 學者가 아니었다. 經濟學의 體系가 價值判斷을 포함하고 그것이 個人의 主體的 行動과 結付된 다는 意味에서 그것은 英國經驗論의 傳統에 立脚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Marshall의 學問的 態度에 關係서 無視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처음에는 牧師가 되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³⁾ 보다 正確히 말하면 그의 父親이 그가 福音派의 牧師가 되기를 희망했던 것이고 이러한 家庭的 雰圍氣속에서 生長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1) Cambridge學派의 性格과 그 學說史의 位置에 關한 簡略한 說明은 Maurice Dobb, "The Cambridge Schoo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ed. by R.A. Seligman and A. Johnson, 1935, Vols.V-VI, pp.369-371.

(2) Marshall, *The Present Position of Economics*, 1885. *Memorials of Alfred Marshall*, ed. by Pigou, 1925, pp.173-174.

(3) Marshall의 傳記중 古典的인 것으로 J.M. Keynes, *Essays in Biography*, 1933 參照.

러나 그는 이를 避해 간다. 그는 Merchant Taylor's School의 成績에 의해서 Oxford의 St. John's College의 獎學金を 받을 資格을 얻었는데 이는 3年後부터는 fellow의 地位까지 進出하여 恒久的인 身分保障을 받게 되고 福音派의 聖職에 오를 수 있는 第一步를 意味한다. 특히 經濟的 基礎를 갖지 못했던 Marshall에게 있어서 이 獎學金獲得은 重大한 意味를 지녔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 進路의 選擇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父親이 禁하던 數學에 끌려 叔父의 經濟的 援助에 매달려 Oxford를 포기하고 Cambridge를 擇한 것이다. 當時의 古典의 大學에서 數學이 科學의 代表的 學問이던 點을 고려할 때 Marshall은 宗教에서 科學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事實 Cambridge大學 卒業直後(1865年) 그는 分子物理學을 工夫하려고까지 생각했었다. 그런데 科學에 이끌렸다고는 하지만 當時 C. Darwin까지도 그랬듯이 宗教를 否定하고 이를 批判하고자 하는 思想은 없었다. 오히려 어릴때부터 받아 온 宗教의 家庭教育은 계속 살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Cambridge大學在學중 數學을 工夫하면서도 그는 如前히 聖職叙任에 대한 期待를 버리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卒業後 알게 된 思想上的 벗이며 스승이기도 한 Henry Sidgwick와의 交友關係는 그로 하여금 不可知論으로 흐르게 한 것이다.

1867년에 Cambridge로 돌아 온 Marshall은 宗教哲學과 社會哲學問題를 討論하고 있던 작은 私的研究會인 Grote Club——道德哲學教授 Grote에 의해 始發되어 當時는 F.D. Maurice 教授中心으로 活動하고 있던 研究會——에서 Sidgwick를 알게 되어 그의 知的 影響을 받게 된다. 그 思想史의 潮流를 보면 基督教의 教義가 Cambridge의 哲學界에서 退潮해 가던 時期에 該當된다. Darwin의 『種의 起源』이 나온 것이 1859年이며 H. Spencer의 『第一原理』가 1860~62年, 그리고 J.S. Mill의 『William Hamilton의 哲學의 檢討』가 1865年으로서 이런 著書들이 思想의 흐름을 주름잡고 있었다. Edinburgh大學의 論理學・形而上學教授 William Hamilton은 Kant哲學의 攝取를 試圖하려 했고 H.L. Mansel은 이를 基督教神學에까지 擴大하려고 한데 대한 批判으로서 著述된 Mill의 前記書의 影響으로 인하여 Sidgwick는 不可知論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明確한 反宗教의 態度는 취하지 않았지만 基督教의 教義의 束縛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Trinity College의 fellow의 地位를 辭任한다(1869年). Marshall도 이와 마찬가지로 宗教의 信仰의 情熱을 喪失하고 以後 一生을 통해서 不可知論의 立場을 취했던 것이다.

Marshall이 經濟學에 入門하기 前의 이와 같은 哲學時代 내지 形而上學時代는 1867年에서 1870年頃이라고 推定되고 있으나 이동안 그는 Kant의 哲學書를 가지고 獨逸에 留

學한다. Marshall의 研究家중에는 그가 Kant와 Hegel의 歷史哲學을 研究하려고 했던 사실 특히 Kant에 관해서 「나의 指導者 Kant」⁽⁴⁾라고 불렀던 사실에서 이를 過大評價하는 傾向이 있고 한편 Sidgwick도 分明히 功利主義의 最後의 旗手라고 하면서도 Kant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Marshall도 그와 同一한 길을 걸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기실 Kant는 그에게 있어서는 「안개가 서려 있는 것처럼」⁽⁵⁾ 보였을 뿐으로 끝내 理解할 수 없었던 것이며 「나의 指導者 Kant」란 表現도 그의 思想上 實質的인 影響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獨逸의 古典哲學을 英國의 思想家가 理解하지 못했던 것은 Marshall만의 經驗은 아니었다. 그에 앞서서는 Mill도 마찬가지였다. 또 Marshall 다음 世代로는 Russel이 그랬다. Mill에게는 Kant, Russel에게는 Hegel의 差가 있었지만 獨逸哲學에의 接近은 結局 英國에서 뿌리를 박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萬一 Kant의 影響이 Marshall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純粹理性으로 神의 存在를 不可知로 하는 Kant自身이 人間으로서 自己自身에 대해 禁慾的·自律적이었던 그의 人間的 態度였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自己自身에게 嚴格했던 이 態度가 오히려 逆으로 社會에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傳統的 倫理學안에서 社會問題를 생각하게 하는 經濟學의 研究에 精進게 하는 契機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Marshall이 經濟學의 研究를 시작한 것은 이 哲學時代와 重復되는 1867年頃부터이고 이에 集中해 간 것이 1870年代以後이다. 基督敎의 敎義로부터의 離脫에서 不可知論으로의 이와 같은 過程은 通常은 宗教를 動搖시키는 科學의 思考에의 接近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것은 宗教로부터 科學으로의 思想的 移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Marshall個人에게 있어서는 이 過程이 宗教에 代身하는 以上으로 傳道者의 *ethos*의 確立에 의해서 安定되어 간다. 宗教의 家庭教育속에서 養成된 그가 宗教를 떠나는 것은 거기에 代身하는 規範을 自己內部에서 찾아냄으로써 可能했고 그렇기 때문에 生活者로서의 그의 態度는 더욱 더 傳道者의 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社會의 貧困을 科學的 分析을 통해서 除去하려는 學問 즉 經濟學을 통해서 可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經濟學은 처음부터 倫理學, 道德哲學, 社會哲學으로서 存在했던 것이다. Marshall의 宗教에서 科學으로의 길은 이처럼 社會科學 특히 經濟學에 의한 社會改良이라는 傳道者의 志向에 의하여 逆으로 科學에서 宗教로 그 人生의 出發點으로 回歸해 간다.

이미 引用한 그의 有名한 語句——冷徹한 頭腦와 따뜻한 心情(*cool head but warm heart*)——이 語句는 그에게 있어서 *cool head*로 科學을 暗示하고 *warm heart*로 宗教를 暗示하

(4) J.M. Keynes, *Biography*, p. 138.

(5) J.M. Keynes, *ibid.*, p. 134.

고 있었다. 다만 그 宗教는 神學이 아니라 生活態度였으며⁽⁶⁾ 倫理學이며 道德哲學이고 *cool head*는 그것을 實現하는 經濟學이었다. 人生의 出發點인 1850年代에서 1860年代의 英國思想界의 革新的인 움직임을 背景으로 半無意識의으로 宗教에서 科學으로 時計錘를 기울였던 Marshall은 다시 宗教로 향한 것이다. 日常性的인 論理속에서 살고 그것을 重要視해 온 Marshall에게 있어서는 그 振幅이 근소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錘가 原位置로 되돌아 갈 때 *cool head but warm heart*란 語句가 發生했고 經濟學研究가 이를 支持해 주었다는 것은 注目할 事實인 것이다. 왜냐 하면 이 宗教와 科學과의 關係는 Marx의 그것과 對照的인 것이 때문이다.

科學과 宗教 이 두가지는 一生을 통해 그의 內部에 살아 있었다. 이 點을 처음으로 指摘한 것은 Marshall의 愛弟子 Keynes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9世紀 最終 10年間 Cambridge에 있어서 道德哲學을 擔當하고 있던 두사람의 同僚인 Henry Sidgwick와 James Ward와 마찬가지로 Alfred Marshall은 賢者나 教師의 種族에 속해 있었다. 더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二重의 本性을 간직하여 科學者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그 自身이 즐겨 優位를 賦與하려 했던 것은 그의 本性의 第一의 側面이었던 것이다. 이 自我야말로 主人인 것이며 第二의 自我는 從僕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第二의 自我는 知識을 위한 知識을 구했다. 第一의 自我는 抽象的인 目的을 實際的인 進歩의 必要에 從屬시켰다.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과 하늘을 雄飛하는 날개는 道를 說破하는 者의 敎示를 받기 위해 종종 地上으로 召喚되곤 했다.」⁽⁷⁾ Marshall에게 두가지의 魂이 共生하고 더구나 그의 主觀的인 意圖에 있어서는 經濟學으로 代表되는 科學은 어디까지나 第一의 魂의 從僕이었음은 같은 弟子의 한 사람인 A.C. Pigou도 認定하던 바이다. 「그에게 있어서 經濟學은 倫理에 대한 下女였다.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라 目的을 達成하는 手段이었다.」⁽⁸⁾ 「經濟學은 知的인 遊戲로서가 아니라 또는 眞理를 위한 眞理를 구하는 手段으로서가 아니라 倫理의 助手이며 實際의 侍從으로서 價値가 있는 것이라는 굳은 信念에서 出發하여 Marshall은 이 理想에 適合하도록 굳은 決心으로 自己의 事業을 確立해 갔다.」⁽⁹⁾

倫理와 科學 더구나 前者를 優位에 두는 Marshall의 이러한 二重性은 Marshall體系의 內部에까지 問題를 投影시키고 있다. 다시 Keynes에 의하면 「이와 같은 二重의 本性은 Marshall의 長點과 短點의 交錯이라든가, 그 自身의 갖가지 目的의 衝突과 힘의 浪費, 그

(6) J.M. Keynes, *ibid.*, pp.134-35.

(7) J.M. Keynes, *ibid.*, p.140.

(8) A.C. Pigou, *Memorials*, p.82.

(9) A.C. Pigou, *ibid.*, p.84.

에 관해서 恒時 품을 수 있었던 두가지의 見解, 그가 喚起시킨 共感과 反感 이러한 것들을 理解하기 위한 실마리였던 것이다。」⁽¹⁰⁾

III. Marshall 理論의 二重性

Marshall 에게 있어서의 倫理와 科學의 二重性중에서 그 倫理優位에 理解를 나타내는 代表者가 Pigou 라고 한다면 科學을 취하고 倫理를 버리는 代表的 學者가 Keynes 이다. 우리는 이 두가지 理解差를 문제삼기 前에 Marshall 의 經濟理論內部에서의 矛盾을 指摘하기로 한다.

Principles of Economics 第5編 第2章에서 Marshall 은 「需要와 供給의 一時的 均衡」의 問題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Marshall 은 穀物을 事例로 들어 一時的 均衡의 說明을 終結지 으면서 지금까지 暗黙裡에 하나의 假定이 전제되어 왔음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財貨는 支配하는 量이 增加할수록 그 財貨의 限界効用이 低下하지만 貨幣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前提였다. 貨幣는 限界効用遞減이 없고 또는 貨幣의 價値는 一定하다는 假定이다. 이 假定을 嚴守한다면 貨幣價値論에 있어서 貨幣數量說을 취하는 體系와 直結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一般物價水準의 逆數로 貨幣價値를 表示하게 됨으로써 어느 貨幣單位도 그것으로 表示하는 同一한 價値 즉 많이 支配하는 積게 所有하는 同一한 價値를 나타내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기 때문이다. 財貨의 分析에서는 限界分析에 의한 極大理論이 適用되고 貨幣分野에서는 그것과 方法論의으로도 內容面으로도 判異한 貨幣數量說이 適用된다는 二重性 이 點이 오늘날 一般的으로 新古典學派의 體系에서 省察되고 있는 特徵의 하나이다.

그러나 Marshall 은 敘述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繼續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런데 勞動市場의 경우는 例外가 종종 있고 그것은 重大한 경우가 많다. 勞動者가 飢餓의 不安에 허덕일 때는 그의 貨幣에 대한 欲求(그에 대한 貨幣의 限界効用)는 대단히 크다. 就職을 할 때 어설픈 契約으로 낮은 賃金으로 雇傭되었다면 貨幣의 限界効用이 높고 그는 자기 勞動力을 低賃金으로 계속 팔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은 다음과 같은 事情이 있기 때문에 더 한층 그 可能性이 크다. 즉 商品市場에 있어서는 販賣者와 購買者 사이에 去來의 利點이 제법 平等히 分布되어 있지만 勞動市場에 있어서는 販賣者보다도 購買者側이 有利한 立場에 서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商品市場과 勞動市場의 사이에는 또 하나의 差異가 있다. 그것은 勞動力의 販賣者는 處分可能한 勞動力을 한 單位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10) J.M. Keynes, *Biography*, p.140.

서 緣由된다. 이러한 事實은……勞動者階級이 一部 經濟學者들 특히 使用者階級에 속하는 經濟學者들의 學說에 대해서 품고 있는 거의 本能的인 反對가 이처럼 많이 나오게 된 理由를 說明하는 수많은 事實들 중에서 摘出할 수 있는 두가지 事實이기 때문이다. 이들 經濟學者들은 勞動을 단순히 1 個의 商品으로 간주하고 勞動市場도 다른 모든 市場과 同一하게 取扱하는 習性이 있으나 사실은 兩者 사이에는 理論의 觀點에서는 基本的인 아니라 하더라도 극히 顯著하고 實際上 종종 대단히 重大한 差異點이 있는 것이다.」⁽¹¹⁾

勞動者의 경우는 貨幣의 價値가 變動한다. 貨幣를 많이 保有할 경우는 같은 1,000 원이라 해도 그 價値가 적지만 돈이 없는 경우는 1,000 원도 그 價値가 커진다. 왜냐 하면 1,000 원이 그에게 있어서 稀少性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前提를 是認하면 貨幣에 관해서도 限界効用遞減이 貫徹되고 同時에 貨幣數量說에 의한 價値決定이라는 新古典派의 體系는 崩壞된다. 勞動者에게만 貨幣數量說에 의한 貨幣價値의 決定이 妥當하지 않는다는 것은 理論的 分裂이 아닐 수 없다.

事實 이 理論上의 分裂은 1920 年代에 더 擴大되어 갔다. 萬一 勞動者에 관해서 貨幣의 限界効用遞減의 事實을 認定한다면 勞動力이 過剩이어서 賃金率이 低下하면 勞動者가 入手하는 賃金總額은 적어지고, 假定에 의하여 支配하는 貨幣量이 減少하는 結果 貨幣單位當의 價値가 上昇하게 되어 그만큼의 價値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勞動을 供給하고자 하는 行動이 일어난다. 즉 賃金の 低下가 勞動供給量을 증가시킨다는 右下向의 供給曲線이 나타나는데 이는 價値下落에 따라 供給量이 減少하여 右上向의 供給曲線을 그리는 一般財貨의 경우와 反對가 되며 이의 供給增加는 漸次 더 賃金率을 引下해 간다. 이러한 過程의 歸結은 賃金率이 最低生活費水準과 같게 되고 勞動者의 狀態는 自由放任下에서는 이러한 狀態에 이르게 되므로 勞動組合에 의한 沮止力의 支持가 必要하다는 思考를 낳는다. M. Dobb의 思想이 그러한 경우를 대변하고 있으며⁽¹²⁾ 한편 이와 反對로 貨幣數量說을 固守하면서 貨幣의 限界効用不變을 모든 사람에게 假定한다면 右上向의 勞動供給曲線을 얻는다고 하는 立場이 J.R. Hicks이다.⁽¹³⁾ 이처럼 兩極分裂의 可能性이 Marshall의 理論에 共存하고 있어서 그 矛盾이 論理的으로 解決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貨幣理論上의 矛盾처럼 Marshall은 종종 두개의 相異한 理論을 混同시키고

(11)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1956, pp. 279-280.

(12) M. Dobb, A Sceptical View of the Theory of Wages, *Economic Journal*, Dec., 1929; M. Dobb, A Note Concerning Mr. J.R. Hicks on "The Interdeterminateness of Wages," *E.J.*, March, 1931.

(13) J.R. Hicks, Edgeworth, Marshall, and the Interdeterminateness of Wages, *E.J.*, June, 1930; J.R. Hicks, A Reply, *E.J.*, March, 1931.

있다. 오늘날의 理論에서 보면 그것은 分明히 混同이지만 Marshall에게 있어서는 何等の 矛盾이 아니었던 것도 事實이다. 왜냐 하면 이 矛盾은 다름 아닌 現實 그 自體의 矛盾이 었기 때문이다. 가령 前述한 바대로 富裕한 者와 貧寒한 者사이에는 貨幣의 限界効用에 差異가 난다.⁽¹⁴⁾ 貧困者와 勞動者階級の 地位를 생각하는데 이 點은 無視할 수가 없다. 이는 現實把握 그 自體 즉 資本主義의 모습을 이러한 面에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勞動者든 資本所有者든 土地所有者든 모두 同一한 生産用役의 所有者로서 그 經濟行爲(economic behavior)를 同一한 類型으로 捕捉하여 體系的 美를 完成하려고 한 Walras와 는 달랐다. Marshall은 그 나름대로 資本主義의 特徵을 이런 點에서 이해하려 했다는 點에서 보다 優秀한 科學者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처럼 現實認識의 深化를 可能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다른 하나의 魂인 *warm heart* 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이러한 側面에서 把握할 수 있는 資本主義의 特徵이 무엇이며 把握할 수 없는 面이 무엇인가 하는 問題는 남는다 하더라도 「따뜻한 心情」에 의한 現實理解는 Marshall의 強點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생각한 Marshall은 그 自身の 貨幣數量說을 展開한다. 오늘날 Marshall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Cambridge 現金殘高貨幣數量方程式이다.

$$M=kY \quad (1)$$

여기서 M 는 貨幣數量, Y 는 所得, k 는 Marshall의 k 이다. 通常의 Fisher 流의 貨幣數量方程式은 P 를 一般物價水準, T 를 財貨의 去來數量, V 를 貨幣의 流通速度라고 할 때

$$PT=MV \quad (2)$$

의 式으로 表示된다. 그리하여 通說에서는 이 式을 變形하여

$$M=\frac{1}{V}PT \quad (3)$$

를 얻고 販賣高 PT 와 所得사이의 一義的인 關係가 있으므로 現金殘高貨幣數量方程式도 Fisher 流의 貨幣數量方程式도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arshall에게 있어서는 이 兩者가 다르다. 通說은 (2)式과 (3)式에서

$$P=\left(\frac{V}{T}\right)M \quad (4)$$

을 얻어 貨幣價値는 一般物價水準 P 의 逆數로 나타나기 때문에 貨幣數量 M 이 增加하면 物價 P 가 上昇하여 貨幣價値가 下落하고 貨幣數量이 減少하면 逆으로 그 價値가 上昇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Marshall에게는 그렇게 單純하지가 않다. 그는 이 問題를 說明하는데 「貨幣의 價値는 一方으로는 그 供給과 一方으로는 『各自가 바로 使用할 수 있는 形

(14) A. Marshall, *Principles*, pp.80-81.

態로 保有하고자 원하는 商品에 대한 支配權의 平均的인 保有量』으로 測定할 수 있는 그 需要와의 函數」⁽¹⁵⁾라고 表現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財貨의 價値가 需要와 供給이라는 兩 變數로 決定되든지 貨幣의 價値도 需給關係로 決定되는 것이다. 이른바 貨幣數量方程式은 供給만으로 價値가 決定된다는 理論模型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1)式的 右邊은 사람들이 所得중 어느만큼을 貨幣의 形態로 保有하고자 하는가의 貨幣에 대한 需要를 나타내고 左邊은 貨幣의 供給을 표시하고 있다. 貨幣의 價値는 이 兩者의 交叉點에서 決定되는 것이며 右邊 즉 貨幣의 需要의 背後에는 貧者와 富者의 貨幣에 대한 限界効用上의 差異點이 있음을 暗示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그의 體系가 모두 그렇든지 問題의 中心이 長期에 있고 長期로는 貨幣의 供給이 貨幣價値決定上 重大한 意味를 갖는다고 생각함으로써 이른바 貨幣數量說과 同一한 結論에 이를 內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V. Marshall 體系의 構造——一般均衡論과의 差異點

Marshall 經濟理論의 基本的 骨格은 그 立體的 構造라고 할 수 있는 時間的 要素와 領域的 넓이와를 結合한 體系속에 있다 할 수 있다. Marshall의 *Principles of Economics* 第 8 版의 序文에 다음과 같은 文章을 볼 수 있다.

「本卷은 一貫해서 運動을 惹起시키는 諸要因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며 그 基調는 靜學이 기보다는 오히려 動學의 것이다.

그러나 取扱하고자 하는 要因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씩 다루어 가며 重要한 研究에 대한 補助가 되는 몇개의 解法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선 特定財貨의 供給, 需要 및 價格의 直接的인 關係만을 孤立化시켜 『餘他の事情이 同一하다면』이라는 語句를 使用하고 다른 모든 힘이 作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들 諸要因이 事實은 作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暫時 그 作用을 無視하는 것이다. 이 科學的 方法은 科學發生 以前부터 있어 온 것으로서 太古적부터 知覺있는 사람들이 意識의든 無意識의든 日常生活의 難問을 處理하는데 使用해 온 方法인 것이다.」⁽¹⁶⁾ 이것이 흔히 말하는 部分均衡論의 方法에 관한 Marshall의 說明이다.

Marshall은 우선 눈을 特定市場에 集中하여 時間을 극히 짧게 잡는다. 가령 釜山魚市場을 例로 들어도 좋다. 여기서 市場均衡은 오늘 出荷된 供給量으로 이루어진다. 즉 一定

(15) J.M. Keynes, *Biography*, pp. 163-164.

(16) Marshall, *Principles*, pp. xii-xiii.

量的 供給에 대응한 需要가 價格을 決定한다. 이것을 그는 「一時的 均衡」이라고 한다. 一時的 均衡에서는 生産量이 一定하고 不變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決定되는 價格이 높으면 企業家は 生産量을 增加하려 하고 낮으면 減少시켜 간다. 이 理論의 解明이 「短期」理論이며 *Principles*의 第5編의 中心課題이다. 여기서의 短時는 一時的 均衡보다는 길지만 生産設備의 增減을 가져올 만큼 長期는 아니다. 資本設備一定下에서의 生産量의 變化에 의한 適應過程이 그것이다. 一時的 均衡의 경우는 釜山市場에 出荷된 生鮮은 서울에서의 生鮮價格이 제아무리 높다해도 서울市場으로 옮겨질 수 없다. 市場이 局部的으로 限定된 것이다. 그러나 短期로 되면 企業家が 다른 地方의 市場을 比較하여 거기에 適應할 것을 企圖한다. 市場의 크기도 擴大된다. 지금까지 서로 獨立的인 서울과 釜山市場은 어느 限度까지의 價格差의 範圍內에서는 相互 獨立되어 있던 것이 이 限度以上の 價格差가 벌어지면 商品이 相互間 交流하여 하나의 市場으로서의 意味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短期에 適應한 경우라해도 市場에서 定해지는 價格이 正常價格보다 높고 더구나 그것이 어느 限度를 넘게 되면 新規設備를 갖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一定하다고 假定해 온 資本設備의 變化를 생각하는 「長期」의 出現이 이것이다. 對象이 되는 市場은 擴大된다. 그리고 이 長期를 短期로 간주하고 보다 長期的인 경우를 考察하면 「趨勢」가 된다.

Marshall은 以上과 같은 時間的 要素와 市場의 넓이와를 組合시키고 여기에 企業→産業→社會라는 또 하나의 觀點을 結合시켰다. 有名한 숲(森)과 나무의 例, 또는 「代表的 企業」(*representative firm*)의 論理가 그것이다. 지금 個個의 企業을 나무로 比喩한다면 그 나무 하나 하나는 榮枯盛衰가 있으나 이것들이 形成하고 있는 숲은 個個 나무의 盛衰와는 別途로 하나의 盛衰過程을 갖는다. 萬一 나무가 企業이라면 숲은 産業이다. 이 경우 特定한 나무중에는 꼭 숲의 盛衰와 同一한 步調를 걷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Marshall은 「代表的 企業」이라 하였다. 一般的으로 企業이 얻은 利益에는 企業 스스로가 技術을 開發하고 經營을 合理化시킴으로써 그 結果로 얻는 利益처럼 自己努力에 의한 「內部經濟」(*internal economies*)의 利益과 社會全體의 發展 各企業이 都市에 集中하는 데서 얻는 利益이 있듯이 「外部經濟」(*external economies*)에 의한 利益의 두가지가 있다. 代表的 企業이란 「大規模生産에 수반되는 內部經濟 및 外部經濟를 正常的으로 享受하고 그리고 正常的인 能力으로 管理되는」⁽¹⁷⁾ 企業인데 이와 같은 企業을 想定하는 까닭은 同一産業內에 能率이 떨어지는 企業과 優秀한 企業이 混在되어 있는 經濟를 前提하고 있는 데서 緣由된다.

(17) Marshall, *ibid.*, p.412.

바꾸어 말하면 오히려 그러한 混在가 있는 까닭으로 競爭이 그 產業內에서 變化를 惹起시키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靜態均衡에 代身한 動態의 社會가 出現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長期正常價格을 決定하는 것은 이 代表的 企業의 費用을 基準으로 한 것이다.

以上과 같이 Marshall의 市場構造는 Walras에서 시작되는 一般的 均衡論이 想定하는 市場構造와 判異하게 다르다. 一般均衡論이 想定하고 있는 市場은 요컨대 「等質的 市場構造」이다. 흔히 引用되는 證券去來所의 事例가 이것을 端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어느 한쪽에서 變化하는 即時 全體에 波及한다. 그러므로 全體가 하나의 市場이며 均衡價格은 모든 主體에 대해서 均衡條件을 保障해 준다. 어떤 企業에는 均衡이지만 다른 企業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과 같은 想定이 없다. 또한 서울에서의 市場價格과 釜山에서의 그것이 一定範圍內에서 乖離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의 均衡價格에는 一時的 均衡인지, 短期인지 長期인지의 問題도 提起되지 않는다. 一般的 均衡論은 變動하고 있는 現實 그 自體를 把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一時點에서 捕捉하여 技術, 資源, 欲望 등의 條件을 固定化시키고 이러한 條件下에서 競爭을 徹底히 貫徹시키면 그 以上 變動이 없는 狀態에 到達할 것이며 이러한 均衡狀態를 記述하는 것이 一般均衡論이다. 그러므로 이안에서의 企業은 競爭을 徹底히 實行하는 過程에서 가장 能率의인 技術을 使用하는 企業만으로 構成되어 있으므로 숲속에서 榮枯盛衰를 계속하고 있는 各種의 나무가 있다는 狀態가 아니라 모든 나무가 같은 모습으로 곳곳이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時點에서 短期均衡이 成立하여 企業이 利潤極大를 實現한다 해도 長期의 前提下에서는 均衡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資本設備에의 投資가 행해지고 變動過程이 發生한다는 것이 Marshall의 市場이다. 그가 *Principles* 序文에서 「原論編에서는 力學的 推論에 比較的 많이 依存하지 않으면 안된다. 『均衡』이라는 用語를 자주 使用하지만 그것은 靜學的 推論에 속하는 듯한 印象을 줄 수 있다.……그러나 實際로는 本卷은 全般的으로 運動을 惹起시키는 諸要因을 다루고 있는 것이며 그 基調는 靜學이기 보다는 오히려 動學的의 것이다」⁽¹⁸⁾라고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해서 一般均衡論은 一時的 均衡도 短期 및 長期均衡도 同時에 成立하는 體系로서 그것은 變動의 內因이 없는 文字 그대로 靜學的인 것이었다. 價格差가 작으면 地域別로 部分市場이 成立되어 相互 獨立적이던 것이 價格差가 커지면 統合되어 相互 競爭해 가는 것도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Marshall 體系는 이러한 意味에서 時間的·場所的·技術的으로 異質的인 現實市場을 想定하고 있는 것이다.

近代經濟學史의 通說은 Marshall의 部分均衡論과 Walras에서 시작되는 一般均衡論을

(18) Marshall, *ibid.*, p. xii.

對比시켜 部分均衡論은 限定된 觀點에 立脚한 不完全한 理論으로 보고 一般均衡論은 市場의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어떠한 變化라도 모두 全體에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처음으로 捕捉했다는 意味에서 科學的 方法의 確立을 가져왔다고 보는 傾向이 강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解釋은 問題의 焦點을 逸失하고 있다. 왜냐 하면 Marshall은 經濟諸量의 相互依存關係를 어떤 意味에서 Walras보다 더 外延的으로 強調하고 있기 때문이다. 1919년에 發刊한 *Industry and Trade*의 序文에 “The many in the one, the one in the many”란 語句는 Marshall의 이와 같은 思考를 明示해 주고 있는 것이다.

Marshall은 相互依存關係가 經濟現象에 存在함을 確認했다. 그러나 그가 否定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 一般的 相互均衡關係라는 單純圖式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異質的·現實的 經濟構造를 前提하고 있는가 等質的·觀念的 經濟構造를 前提하는가의 差異를 內包하기 때문이다. 英國의인 經驗論에 立脚한 Marshall은 現實을 無視하는 이러한 等質的·觀念的 市場을 前提한 單純한 體系에 滿足할 수 없었던 것이다. 「餘他の 事情이 同一하다면」이라는 前提下에 展開된 分析은 이처럼 複雜한 現實構造를 分析하는 手法이었던 것이다.

V. 價値論上的 折衷問題

Marshall에 관한 通說중 둘째번은 그가 새로히 登場하기 시작한 效用理論과 古典派的 價値論을 折衷했다는 解釋이다. 이와 關聯하여 흔히 引用되는 것이 有名한 Marshall의 가위의 「兩날」에 관한 事例이다. 「價値는 效用으로 決定되는지 生産費로 決定되는지를 論議하는 것은 종이를 자르는 것은 가위의 뒷날인가 아랫날인가로 다투는 일이나 다름 없다. 한 쪽 날을 固定시켜 놓고 다른 쪽 날만을 움직여서 종이를 切斷했다고 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한쪽 날만으로 잘랐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嚴密하게는 옳지 않다.」⁽¹⁹⁾ 그런데 勿論 Marshall은 需要의 背後에 效用을 認識하고 있었고 供給의 背後에는 그것을 規制하는 生産費를 論하고 있다.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의 交叉點에서 價格이 決定된다는 그의 思考에서 上記의 解釋에 나오는 것은 一見 當然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解釋方法으로는 理解되지 않는 것이 Marshall의 Jevons에 대한 極度の 嫌惡와 Ricardo에 대한 忠誠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Jevons가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를 出刊한 것은 1871년이 었다. 通說에 의하면 이에 의해서 限界效用分析에 基礎를 두는 새로운 經濟學이 英國에 자

(19) Marshall, *ibid.*, p. 290.

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當時 “Academy”의 編輯者는 같은 研究者로서 그 書評을 Marshall에게 委屬했다. 이에 Marshall은 “Mr. Jevons’ Theory of Political Economy”란 書評을 1872년에 썼는데 그로부터 25年後인 1897년에 이 書評을 再讀한 然後 Marshall은 다음과 같은 回想을 하고 있다. 「나는 期待를 안고 Jevons의 『理論』을 읽었지만 그는 나의 難問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 ……그는 Mill의 거의 敎皇의 權威가 젊은 研究者에게 미친 害惡을 痛感하였던 터이므로 自己의 理論이 Mill이나 Ricardo의 學說과 相容되지 않는 것임을 實際보다 훨씬 誇張해서 보이기 위하여 自己의 學說을 억지로 屈曲시킨듯 하다. 그러나 數學的 敎養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數學的으로 생각하는 通路를 完全히 여는데 成功한 Ricardo의 天才——Mill은 그렇지 않았다——그를 나의 英雄의 한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내가 Jevons의 『理論』을 읽었을 때 Ricardo에 대한 나의 青春의 忠誠은 들끓었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나의 草稿에 역역히 들어나려 했던 憤怒의 語句를 生生하게 記憶한다.」⁽²⁰⁾

Marshall은 *Principles of Economics*의 序文 등에서 自己의 새로운 着想이 Cournot의 *Recherches sur les principes mathematiques de la théorie des richesses*, 1838과 von Thünen의 *Der isolierte Staat in Beziehung auf Lnadwirtschaft und Nationalökonomie*, 1826~63에 依存하고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는 Jevons로부터는 새로운 것을 얻은 바가 없다는 點을 밝히려 한다.⁽²¹⁾ Jevons의 著作에 대한 書評이 冷情해진 것도 實은 類似한 理論을 構想하고 그 骨格을 다듬은 다음에 그것이 나왔다는 데에 理由가 있는 것 같다. 分明히 Marshall은 1867년부터 哲學과 經濟學의 研究에 突入하고 1870년까지는 Ricardo와 Mill의 體系의 數學的 表現에 注意를 集中하고 있었던 것이 事實이다. 同時에 이 時代가 그의 哲學時代, 形而上學時代였던 것도 事實이다. 오늘날 Marshall이 Jevons에 先行해서 Cournot와 von Thünen의 影響을 받았는가와 與否는 證明할 수 없다. 그러나 Marshall이 Jevons의 *Theory of Political Economy*를 低評價할 充分한 理由가 있던 것은 確實하다. 그것은 Marshall 經濟學의 中心的 問題意識에 관계되는 同時에 通說이 되고 있는 이른바 折衷派」라는 評價의 內容에도 關係되는 問題이다.

*Principles*의 構成은 理論의인 順序로 되어 있다. 事物이 欲求되고(第三編) 生産되며(第四編) 交換되고(第五編) 끝으로 分配되어 간다(第六編). 여기서 그의 思考의 中心은 需要의 背後에 効用이 있고 이것이 價値를 決定한다고 하는 限界効用學派의인테 있지 않았다.

(20) Pigou, *Memorials*, pp. 99-100.

(21) Pigou, *ibid.*, p. 100.

이같은 一元論에서 生産財의 價値는 무엇이든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二元論이었던 것은 前述한 兩 날의 例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다. 需要의 背後에는 効用이 있고 供給의 背後에는 産業構造論을 바탕으로 한 生産費의 理論이 있으며 이 兩者가 對等한 立場에서 價格을 決定한다는 平面的인 理論이 아니었다. 萬一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理論은 通說과 같이 折衷論以外에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그의 特徵은 價格論 및 價値論을 그의 立體的 理論構造 특히 「時間」의 問題와 結付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이미 市場에 生鮮이 出荷된 경우를 假想해 보자. 前述한 一時的 均衡에서는 價格의 決定은 供給量이 一定이므로 需要의 크기만이 문제된다. 이런 경우는 需要의 背後에 있는 効用이 主導的인 役割을 하게 된다. 그러나 더 長期를 취하게 되면 市場價格은 短期正常에서 長期正常으로 正常價格에 의해서 規制된다. 그것은 限界費用과 價格이 같아질 뿐 아니라 그것이 平均費用과도 같아진다.⁽²²⁾ 그리하여 價格이 平均費用과 같아지는 狀態는 生産費가 價格을 決定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Ricardo의 世界였다. 그는 「一般의 原則으로서는 取扱하는 期間이 짧을수록 價値에 대한 需要側의 影響을 그만큼 重視하지 않으면 안되고 期間이 길수록 生産費의 影響을 그만큼 重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²³⁾고 했다. 이와 同時에 그의 經濟學의 中心課題는 第六編의 分配論 즉 國民所得의 分配문제이며 이는 보다 長期的인 英國資本主義의 發展에 수반되는 分配문제로서 결코 短期的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거기서는 Jevons의 効用이 占하는 位置는 살아지고 Ricardo, Mill의 世界가 登場하는 것이며 이 世界야말로 Marshall이 近代的 理論으로 再構成하려 한 것이었고 또한 그가 Ricardo의 흐름에 依據하게 된 理由이기도 했다. 우리는 여기서 古典派經濟學과 新古典派經濟學의 基本的 差異를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VI. 古典派經濟學과 新古典派經濟學

Ricardo를 古典派의 代表로 보고 新古典派의 代表를 Marshall이라고 한다면 그 中間에 過渡期의 經濟學者 J.S. Mill의 位置를 確認할 수 있다. 이들 三者는 그 基本的인 論理構造에 있어서 어떤 差異와 共通點을 가지고 있는지를 考察해 보자.

Mill은 自己의 經濟理論의 特質을 「主로 富의 生産의 諸法則(이는 對象自體의 性質에 의한 完全한 自然法則이다)과 그 分配의 方式(이것은 몇가지의 條件下에 人間의 意志에 의해서 決定된다)과의 사이에 當然한 區別을 하게 된데서 發生되었다. 從來의 經濟學者는

(22) Marshall, *Pinciples*, p.411.

(23) Marshall, *ibid.*, p.291.

이 兩者를 같은 經濟法則의 이름 밑에 混同하여 人間의 努力에 의해 顛覆하거나 修正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地上에서의 生存에 수반되는 不可變의 諸條件에 依存하는 것과 實인직 特定한 社會機構의 必然的 機構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機構가 바뀌면 當然히 變하는 것과의 雙方에 同一한 必然性を 認定하려고 한다. 一定한 制度和 慣習이 所與되면 賃金이나 利潤이나 地代 등은 一定의 原因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지만 이 派의 經濟學者들은 그러한 不可缺의 前提條件을 看過하고 이들 諸原因이 人間の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內在的인 必然성에 의해서 生産物의 分配에 있어서의 勞動者, 資本家, 地主의 三者 各人의 分配分을 決定하는 것이라고 論한다. 나의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는 이러한 諸原因이 그 前提가 되는 諸條件下에서 어떻게 作用하는가를 科學的으로 理解하려고 했다는 點에서는 先輩諸氏의 어떤 著書보다도 뛰어난 것이 못되지만 다만 이들 諸條件을 最終的인 것으로 다루지 않은 點에서 新機軸을 보인다. 經濟法則은 自然의 必然성에 의해서만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現在의 社會機構와의 組合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므로 當然히 그것은 一時的인 것, 社會改良의 進歩에 의해 크게 變化를 입어야 되는 것 과를 本書는 다룬 것이다.」⁽²⁴⁾

여기서 Mill이 말하는 從來의 經濟學 즉 自然의 法則에 의하여, 따라서 人間の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內在的인 必然성에 의해서 勞動者·資本家·地主의 三者 各己의 取扱이 決定된다고 하는 經濟學 그것은 어디까지나 Ricardo의 經濟學이었다. Ricardo 經濟學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三個의 理論의 支柱에 立脚하고 있었다. 첫째는 價値論, 둘째는 그 自身の 地代論 그리고 셋째는 論敵 Malthus에게서 얻은 人口法則이었다.

收穫遞減의 法則에 의한 地代法則은 文字 그대로 人間이 自然에 作用을 加할때 나타나는 自然法則이었다. 人口法則도 食糧의 增加와 人口增加의 質的 差로서 어느 時代에나 妥當이 되는 自然의 法則의 形態를 취하고 있다. 이와 價値論과를 結合함으로써 Ricardo는 社會의 進歩, 資本蓄積과 더불어 生産의 果實이 三個의 階級에게 어떻게 分配되어 가는지를 考察했다. 그 結果 勞動者階級の 賃金은 最低賃金水準으로 定着되고 社會發展의 바탕을 이루는 資本蓄積의 動機인 利潤은 利潤率低下의 傾向에 따라 그 率이 低下하며 唯獨 地代는 社會發展의 惠澤을 입어 增加를 繼續한다고 본 것이 Ricardo가 解明하려 했던 長期의 法則이었다. Mill에 의한 Ricardo의 改變은 上述한 引用에서 보듯이 Ricardo의 理論을 生産을 規制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分配論을 첨가하여 生産은 自然의 體系이지만 分配

(24) *Autobiography of John Stuart Mill*, 1924, pp. 174-175.

는 人爲의 體系이기 때문에 人間의 知性이 向上되고 社會가 進步하면 分配關係를 改善하고 그에 의해 勞働者階級の 生活水準을 向上시킬 수 있다는 論點을 첨가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第四編「生産 및 分配에 미치는 社會進步의 影響」의 第七章「勞働者階級の 將來의 展望에 관하여」에서 이러한 見地를 進一步시켜 人間知性의 向上이 一方으로는 Malthus의 人口法則의 止揚을, 他方으로는 階級關係의 止揚을 實現시킬 것을 確信하고 있다. 前者는 勞働者階級の 精神的 教養의 向上이 適切한 人口調節을 實現시키고 그것이 分配關係를 變化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며 後者는 資本家뿐만 아니라 勞働者를 포함하는 共同組織에 의한 經營과 勞働者相互間의 共同組織의 將來에 期待를 걸므로써 資本主義的 階級關係를 漸次 除去할 수 있다고 確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Marshall의 體系와 Mill의 體系와는 어떤 點에서 差異가 나는가? Mill의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의 各編과 Marshall의 그것과를 比較해 보자. Mill의 經濟理論體系는 基本的으로는 生産, 分配, 交換의 세가지로 構成되어 있다. 이에 대해 Marshall의 體系는 第三編以下에서 네가지의 支柱 즉 Mill의 그것에 第三編의「欲望과 그 充足」이 附加되어 있다. 물론 이는 限界効用理論의 登場에 의한 變化이다. 그리고 內容上的 큰 變化는 Mill의 第三編「交換」에 對應하는 Marshall의 第五編으로서 이 第五編은 實質的

Mill과 Marshall의 理論體系比較

Mill의 『經濟學原理』	Marshall의 『經濟學原理』
緒 論	第一編 豫備的 考察
第一編 生 産	第二編 若干의 基本的 概念
第二編 分 配	第三編 欲望과 그 充足
第三編 交 換	第四編 生産要因: 土地·勞働·資本 및 組織
第四編 生産 및 分配에 미치는 社會進步의 影響	第五編 需要供給 및 價値의 一般的 關係
第五編 政府의 影響에 관하여	第六編 國民所得의 分配

으로 Marshall이 가장 努力을 集中한 部分이었다. 오늘날 *micro*分析의 共通財産이 되어 있는 一時的 均衡, 短期, 長期, 代替性, 直接費, 間接費, 限界費用, 平均費用, 內部經濟, 外部經濟 등의 武器는 모두 여기에 集中되어 있고 여기서 展開되지 않은 重要的 分析武器는 第三編에 展開된 彈性性概念뿐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즉 Mill에 비한 Marshall理論의 近代性은 이 第三編과 第五編의 內容에 있다고 하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Marshall에 있어서 그 理論의 中心은 결코 이 第五編이 아니었다. 그것은 明確히 第六編이었으며 이 때문에 그 以前의 諸編이 存在함에 지나지 않았다. 第六編「國民所

得의 分配」는 Mill이 古典派에 附加한 分配論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Marshall은 Mill과 同一한 體系의 흐름속에 位置했던 것이다. 分配가 人爲的 體系라는 點과 그것이 人間知性的의 向上에 의해서 改變可能하다는 것 등은 모두 Mill의 그것과 同一線上에 놓여 있다.

『經濟學의 現狀』(1885年)에서 Marshall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 經濟學上의 觀點에 관해서 행해진 變換은……人間自身이 相當한 程度 環境의 產物이며 環境과 더불어 變化하는 것이라는 點의 發見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發見의 重要性이 強調되기에 이른 것은 知識의 發達과 人生에 대한 眞摯性的의 增大와 더불어 最近에 人間性에 深刻하고 急激한 變化가 發生했고 또 發生하고 있다는 事實들에 의한 것이다.」「今世紀初에 英國經濟學者의 주된 缺陷은 그들이 歷史 및 統計를 無視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Ricardo와 그 學徒가 龐大한 一群의 事實과 오늘날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事實의 研究方法를 等閑히 한 데 있는 것이다. 그들은 人間을 말하자면 不變量으로 간주하고 그 變化의 研究에 努力하는 바가 없었다.」「그들은 스스로 勞動者의 見地에 서는 일이 없이 勞動을 單純히 商品으로 看做하게 되었다. 즉 勞動者의 人間感情・本能・同情・反感・階級的 嫉妬・階級的 執着 및 知識의 缺乏과 自由로히 潑刺하게 活動할 機會의 缺乏같은 것을 參酌하지 않았다.」「그러나 가장 重大한 缺點은 產業의 慣習이나 制度가 얼마나 變化하기 쉬운 것인가를 理解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가난한 者의 貧困이 그들의 貧困의 原因인 無力・無能의 主要原因이 됨을 理解하지 않고 또한 勞動者階級の 生活狀態의 廣汎한 改善의 可能性에 관해서 現代經濟學者들이 把握하고 있는 것과 같은 信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²⁵⁾

「社會는 進歩한다」는 意味에서의 固有의 進歩思想은 古典派의 經濟學속에 存在하지 않았다. 先進國 英國에 있었던 本來의 思想은 文明國과 未開社會의 區別정도로서 進歩라든가 發展이라든가 하는 思想은 아니었다. 이러한 思想이 英國에 登場한 것은 十九世紀 프랑스, 獨逸의 思想의 影響下에서였다. Mill이 進歩思想을 受容한 것은 Saint-Simon과 Comte를 통해서이다. 그는 Comte에 따라 歷史는 人間知性的의 向上이 分配의 改善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던 것이다.

Marshall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社會進化의 思想이 Darwin의 進化論, Spencer의 社會進化思想에 의해 影響받고 Mill體系의 繼承이 되었다. 社會進化論에 立脚한 世界觀에 의

(25) A. Marshall, "The Present Position of Economics (1885)," *Memorials*, Pigou, pp. 153-155.

거한 Marshall의 立場은 다만 人間性的 向上을 信賴하는 Mill의 見地에서 人間性과 社會環境의 相互關聯 및 그 向上의 열쇠가 되는 教育의 重要性으로 굳어져 갔다. 그것은 資本家階級에 대해서는 代表的 企業의 끊임없는 規模擴大와 技術進步에 의한 收穫遞減法則을 克服하는 일이었다. 後에 *Industry and Trade*에서 다루었듯이 大規模生産은 世界的 趨勢이며 獨逸 및 美國과의 競爭에서 이 點에서 뒤지기 시작했고 또 科學産業教育에 뒤떨어지고 있는 現狀을 一變시키는 것이 急先務였다. 여기서 企業家は 浪費에 흐르지 않고 蓄積된 富를 社會進步를 위해 또 公益을 위해서 自進提供하는 姿勢 그가 經濟的 騎士道 (*economic chivalry*)라고 부른 것은 이것이었다.⁽²⁶⁾ 勞動者階級에 대해서는 社會教育 특히 勞動組合內에서 教育받은 새로운 勞動者에게 期待를 걸었다. 具體적으로 그의 눈에 비친 것은 Sidney Webb에 의해서 指導되던 모습이였다. 그것은 增加된 收入을 自己의 教養과 技術의 向上을 위해서 使用하고 英國社會의 生産性的 向上에 이바지 하는 것이였다. 그리고 이 社會全體의 進步의 關鍵은 家庭에 있어서의 母親의 教育에 있다고 보았다.⁽²⁷⁾

進步에 의한 國民分配分의 增加 이것은 Marshall이 *Principles*의 最終部分에서 展開한 論點이지만 經濟學의 目的을 貧困의 除去에 두고 傳道者的 使命을 부르짚은 Marshall에게 期待했던 눈으로 보면 失望이 앞설지 모른다. 事實 그의 傳道者的 主張의 歸結이 自覺과 教育에 의한 長期的 改良에 있고 經濟 그 自體는 自由主義를 最上의 體制로 보고 根本的인 社會改革, 制度上의 改良을 意圖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競爭에 의해서 社會는 進步한다고 하는 社會進化論, 社會 Darwin主義의 當然한 歸結이지만 어째서 이 豐饒한 Victoria時代에 貧困이 있는가를 恒常 學生들에게 呼訴하던 Marshall이고 보면 그의 이와 같은 結論은 學生들에게 一種의 僞善으로 보았을 것이다. 사실 그의 愛弟子의 하나인 Keynes는 Marshall의 Victoria的 僞善의 道德觀을 嫌惡하고 人間 Marshall에 대해서 批判的 立場을 持續했던 것이다.⁽²⁸⁾

VII. Marshall 經濟學의 歷史的 背景

Marshall의 哲學時代가 끝나고 經濟學研究의 時代가 開始된 1870年代부터 그가 Cambridge大學의 教授職을 愛弟子 Pigou에게 물려 준 1908년까지의 期間은 그 大部分이 英國 經濟에 있어 「大不況」이라고 할 수 있는 時期—특히 1870年에서 1890年代의 中葉까지—

(26) A. Marshall, "Social Possibilities of Economic Chivalry (1907)," *Memorials*, Pigou, pp. 321-346.

(27) A. Marshall, *Principles*, pp. 578-601.

(28) J.M. Keynes, "Alfred Marshall, 1842-1924," in *Essays in Biography*의 後半部의 論調.

와 一致한다. 이 期間은 1880 年과 1887 年의 2 회에 걸친 景氣回復이 있었으나 物價는 계속 下落하고 企業의 利潤率은 低下되고 거기에 失業率도 높았다. 물론 生産量은 相當한 程度로 增加했지만 그것은 生産性增加의 反映이었고 不況은 勞動市場을 壓迫하고 있었다. 이와 同時에 生産量의 增加도 世界市場에 새로히 登場하기 시작한 獨逸, 美國에 비해서 그 增加率은 훨씬 낮았다. 즉 Victoria 前期와 달리 Victoria 後期는 先進工業國 英國이 後進資本主義諸國의 接近으로 인하여 世界市場에 새로운 競爭의 波動이 일던 時期였다. 더구나 이러한 後進諸國의 肉薄을 可能하게 한 하나의 條件은 世界金融의 中心으로서의 London 市場에 集中된 資金이 美國에 投資되고 또 獨逸의 銀行을 통해서 獨逸工業에 投資되었던 때문이다.

이와 같은 世界經濟의 움직임은 英國의 政治·外交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온 것이다. 일찍이 1852 年에 「不必要한 植民地는 英國의 목을 둘러싼 맷돌」(*millstone around the neck of Britain*)이라고 한 Benjamin Disraeli 가 帝國主義政策의 推進者가 되어 英國의 印度支配體制를 確立한 것이 1876 年, 스에즈運河株를 所有한 것이 1875 年, 蘇聯의 近東侵入에 壓力을 加하여 沮止한 것이 1877 年이며 이어 Joseph Chamberlain 이 Cecil J. Rhodes 와 策略하여 南아프리카經營에 進出した 것이 十九世紀末이었다. 그런데 重要的 것은 이들 帝國主義의 推進者가 同時에 國內적으로는 改革論者였다는 點이다. 가령 보아戰爭의 推進者였던 Chamberlain 은 自由黨員으로서 Birmingham 의 進步的 市長이 되어 政界에 進出했고 Disraeli 조차도 保守的 改良主義者였지 反動은 아니었다. Chamberlain 은 한때 勞動者의 集會를 目擊하면서 거기에 빵을 渴求하는 소리에 接하고 帝國主義政策의 必要性을 痛感하는 것이다. 植民地를 組織하여 英國本國과의 連繫를 圖謀하고 그 市場을 確保한다는 것이 帝國主義의 目的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帝國主義란 英國의 빵」이며 그의 겨냥은 海外市場擴大에 의한 英國의 經濟成長이었다. 이러한 Chamberlain 의 생각은 世界市場에 進出해 온 獨逸商品을 排斥하기 위하여 英本國과 植民地와의 사이에 獨逸關稅同盟에 흡사한 特惠關稅制度를 設置하여 本國과 植民地間에는 自由貿易主義를 채택하고 餘他的 諸國에 대해서는 保護貿易主義를 취하여 이를 排除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政策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保護主義는 19世紀中葉以來 英國人의 信仰이 되어 있는 自由貿易主義와 矛盾되고 그 推進勢力이던 Manchester 派의 思想에 對立되는 바가 되어 一般의 支持를 얻지 못하게 된다. 즉 이 問題를 爭點으로 행해진 1906 年의 總選舉에서 自由貿易派의 聯合이 503 의 議席을 차지한데 비하여 이들 保護主義는 不過 167 席을 얻는데 不過하여 Chamberlain 은 政界를 물러서게 된 것이다.

Marshall의 經濟學이 英國에 普及되는 時代的 背景이 以上과 같았다고 한다면 Marshall 自身은 이러한 時代的 問題에 어떻게 對答하고 있었는가? Marshall은 政治에 直接 關係하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에 明確한 意見을 提示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Chamberlain의 特惠關稅政策에 관해서는 反對였다. C.R. Fay에 의하면 1903년에 Marshall은 講義席上에서 「나는 政治에 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기로 作定했지만……Joseph Chamberlain 氏의 最近의 演說은……實로……. 이리하여 우리들은 이 時間내내 自由貿易 辯護論을 受講받았다」⁽²⁹⁾고 한다. 즉 1902년에 Chamberlain은 Edward 七世 卽位の 祝典에 臨하여 植民地首腦會議를 열고 이듬해 1903年엔 南아프리카의 實地視察을 하고 돌아와 明確히 保護貿易主義를 提唱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自由貿易을 主張한 點에서 Marshall은 Manchester 學派와 같이 反 Chamberlain 派였던 것이다.

그러나 Marshall은 다른 角度에서 보면 Manchester 學派의 思想에도 反對였다. 傳統的인 自由貿易을 主張하고 輸出業者의 具體的 利益을 代表하는 Manchester 學派는 自由貿易에서 勝利를 얻기 위해서 可及의이면 低賃金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이 低賃金을 合理化하고 또는 이를 不可避하다고 보는 經濟理論的 基礎가 賃金基金說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低賃金 乃至 勞動者階級の 貧困을 除去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이야말로 Marschall이 經濟學을 開始할 때의 出發點이었다. 理論의으로는 賃金基金說을 否定하고 實質賃金上昇의 可能性을 指摘하는 것이 그의 目的이었다. 따라서 設令 自由貿易主義라는 點에서 같은 立場이라 하더라도 이 點에서 兩者는 對立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Marshall은 Chamberlain과 같이 世界市場의 힘에 의한 確保擴大에도 反對이고 Manchester 學派의 低賃金政策에도 反對였던 것으로서 그는 問題를 英國産業의 生産性向上 즉 보다 優秀한 機械의 發明과 導入 및 이를 可能하게 하는 資本家의 努力과 勞動者의 能力의 向上에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具體的으로는 收穫遞減의 法則에 대한 人間의 鬭爭이었던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收穫遞減의 法則은 Ricardo 經濟學에서는 資本主義의 將來를 어렵게 하는 中心命題였다. 그런데 Ricardo 自身에 있어서는 그것이 現實化하는 것은 먼 將來의 일이고 直面해 있는 英國經濟의 危機는 穀物條例의 改定에 의한 自由貿易體制의 確立으로써 克服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Marshall과 同時代人이고 또한 敵對者이기도 했던 Jevons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現實의 問題였다. Jevons의 石炭問題에 관한 報告가 그것이며 그는 石炭産業의 收穫遞減에서 英國産業의 危機를 說明하고자 했던 것이다.⁽³⁰⁾

(29) Pigou, *Memorials*, p. 74.

그러나 Marshall 에 있어서는 특히 1907 년에는 이미 英國이 大不況期를 脫皮한지 10 年 가까이 되었을 때 *Royal Economic Society* 에서 행한 講演에서 「現在 英國에서는 收穫遞減의 法則이 거의 作用하지 않는다」⁽³¹⁾고 斷言하게 된다. 물론 그것은 「一世紀나 二世紀後에는……다시금 強力한 影響을 미칠」것이지만 그러나 資本家가 「懶怠한 生活을 하지」않고 經濟騎士道精神에 따라서 「公共의 福利」을 생각하고 「困難을 克服」하여 生産力의 増大를 위해 努力하고 勞動者도 또한 일은 所得의 増加를 浪費함이 없이 生活水準의 向上에 힘쓰고 子弟教育에 많이 割愛한다면 來日의 勞動能率은 높아질 것이다. 즉 資本設備에 變化가 없는 短期의 觀點에서는 收穫遞減의 法則이 作用하고 賃金의 上昇은 利潤의 減退가 되어 兩者가 經濟的으로 對立關係에 있지만 資本設備의 變化를 수반하는 長期의 觀點에 서서 그것이 生産力의 増大를 가져오게 하는 努力으로써 推進된다면 收穫遞減의 法則은 作用을 中斷하고 賃金과 利潤은 다같이 増大할 것이라는 點이 그의 생각이었다.

같은 問題를 T.W. Hutchison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Marshall 은……19 世紀 英國을 世界의 工場으로 만들게 한 獨特한 環境과 20 世紀가 造成하고 있는 英國의 指導權과 繁榮에 대한 危險을 強하게 認定했다. 英國은 科學 및 産業教育에 있어 獨逸에 뒤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英國의 事業家가 認定하게 된』 『그들의 産業主導權의 後退의 主要原因』 이었던 것이다.」⁽³²⁾

以上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19 世紀에서 20 世紀에 걸친 英國資本主義의 動搖에 대해서 세가지의 政策이 提示되었다. 첫째는 國家權力의 利用에 의한 海外市場의 確保이며 自由貿易體制로부터의 離脫 및 帝國主義政策의 鼓吹였다. 둘째는 海外市場競爭을 위한 低賃金政策이며 勞動者階級の 犧牲에 의한 英國資本主義의 發展이었다. 그리고 세째는 國內生産増大에 의한 競爭力의 強化였다. Marshall 은 이 第 3 의 方法에 의해서만 國民分配分의 増加가 얻어지고 同時に 勞動者의 生活水準이 向上될 수 있다고 主張함으로써 當時의 英國資本主義의 時代的 要請에 解答을 얻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이 Marshall 에 의해서 礎石이 닦여진 Cambridge 學派의 經濟學은 그 問題意識이 數學的 思考는 하되 經濟理論을 社會改良이라는 實際的 目的과 結合시키려 하고 純粹理論을 人道主義的 要素와 結付시키며 自由放任主義에 대한 限界와 制約을 強調하고 生産

(30) Stanley Jerns, *The Coal Question: An Inquiry Concerning the Progress of the Nation and the Probable Exhanstion of Our Coal Mines*, 1865.

(31) Pigou, *Memorials*, p. 326.

(32) T.W. Hutchison, *A Review of Economic Doctrines, 1870-1920*, p. 20.

費價值論과 效用價值論의 結合을 試圖한다는 點 등에서 共有財産을 갖는 傳統을 繼承・發展시켜 간다. Marshall 以後에 登場하는 A.C. Pigou, D.H. Robertson, J.M. Keynes 등에 의한 厚生經濟學, 景氣循環論, 貨幣理論的인 發展系譜뿐만 아니라 Sraffa, H.D. Henderson, Maurice Dobb 등에 의한 費用理論, 地代論, 分配論 등에서의 問題提起를 거쳐 Keynes 革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좀 더 愆心을 내자면 最近 經濟理論의 「第二의 危機」를 警告하는 Robinson 에 이르기까지 Cambridge 精神을 貫流하고 있는 問題意識의 鑛脈을 發掘하여야 Cambridge 學派 經濟學의 全貌가 確認될 수 있을 것이다. 本稿는 이와 같은 展望을 갖는 Cambridge 學派 經濟學研究의 原點確認에 관한 하나의 試圖에 지나지 않음을 附記한다.